

이프랜드·윈스토어 앞세워 유럽 시장 ‘협공’

〈메타버스 플랫폼〉

〈애플마켓〉

합작법인 설립·지분투자 방안 검토
SK ICT 연합 ‘튼튼한 지원군’ 확보
“긴밀한 협력으로 글로벌 혁신 주도”

‘이프랜드’와 ‘윈스토어’ 등 SK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서비스가 독일 통신사업자 도이치텔레콤과 손잡고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선다. 합작법인 설립부터 지분투자까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SK스퀘어와 SK텔레콤은 5일 독일 본에 있는 도이치텔레콤 본사에서 사업 협력을 논의했다.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서 SK스퀘어, SK텔레콤, SK하이닉스가 ‘SK ICT 연합’ 출범을 선언한 후 본격적인 후속 행보다. SK텔레콤은 2월 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모바일월드콩그레스)에서 ‘넥스트 빅 테크’의 글로벌 사업 추진을 발표한 이후 이에 대한 실질적 사업성과를 만들기 위해 이번 회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합작사 설립에 지분투자도 검토

이번 만남에선 ▲메타버스의 글로벌 사업 공동 추진 ▲사이버 보안 사업 협력 ▲윈스토어 유럽 진출 등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SK텔레콤과 도이치텔레콤은 ‘유럽판 이프랜드’ 출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양사는 3월부터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의 유럽 진출에 대해 논의해왔다. 도이치텔레콤은 이프랜드가 유럽에서도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박정호 SK스퀘어 부회장, 팀 회트게스 도이치텔레콤 회장, 클라우디아 네트 부회장(왼쪽부터)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 | SK텔레콤

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는 올해 안에 독일을 시작으로 유럽 각 지역에서 이프랜드의 테스트를 함께 진행하고, 콘텐츠 발굴과 마케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독일의 특정 도시를 본 뜬 가상공간과 전용 아바타 및 의상 등을 개발해 도이치텔레콤 고객 대상으로 제공하는 식이다. 중장기적으로 유럽 지역 메타버스 사업 전초기지 역할을 할 합작회사 설립도 논의했다.

사이버 보안 사업과 관련해서 SK스퀘어의 자회사 SK실터스와 도이치텔레콤의 보안사업 자회사 도이치텔레콤 시큐리티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양사는 디지털 인프라 방어체계를 고도화하고, 고객 보안 수준을 강화하는 데 협력한다.

애플마켓 윈스토어의 유럽 진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윈스토어와 도이치

텔레콤은 조인트 벤처 설립과 양사 지분 투자 등을 포함한 ‘유럽판 윈스토어’ 추진을 위해 지배구조와 사업 전략 등 구체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SK텔레콤과 도이치텔레콤은 ESG 분야에서도 ‘넷제로’ 달성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ICT 협력 지속할 것”

SK텔레콤과 도이치텔레콤은 2018년 MWC에서 양사 최고경영자(CEO)가 회동한 뒤, 그해 10월 팀 회트게스 회장이 방한해 글로벌 ICT 생태계 선도를 위한 협력을 추진하며 끈끈한 동맹 관계를 유지해 왔다. 2019년 6월에는 SK텔레콤이 도이치텔레콤 투자전문 자회사 DTC P가 운영하는 펀드에 3000만 달러를 투자했고, 지난해 1월에는 양사가 50 대 50의 지분을 갖는 5G 기술 합작회사 테

크메이커를 설립했다.

박정호 SK스퀘어 부회장은 “이번 회동은 SK텔레콤과 도이치텔레콤 간 파트너십이 SK ICT 연합으로 확대된 것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SK ICT 연합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 도이치텔레콤이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앞으로도 도이치텔레콤과 미래 ICT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팀 회트게스 도이치텔레콤 회장은 “SK텔레콤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미래 혁신 산업 선도를 위한 양사의 기술력과 사업 역량을 폭넓게 교류해왔다”며 “SK ICT연합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글로벌 ICT 혁신을 선도하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LG유플러스 직원이 전주주에서 HFC 전원공급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제공 | LG유플러스

LGU+, 친환경 네트워크 장비 도입 ESG경영

LG유플러스는 초고속인터넷 등 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 광동축혼합망(HFC)을 광가입자망(FTTH)으로 교체하고, 친환경 정류기와 소형 외기냉방장치를 설치하는 등 ESG 경영에 기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HFC는 광케이블과 동축케이블을 함께 사용하는 유선 가입자망이다. 초기 초고속인터넷 보급 시기에 커버리지를 확장하기 위해 많은 곳에 구축됐으나, 네트워크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신축건물에서는 광케이블만을 사용하는 광가입자망으로 대체되고 있다. 또 수동소자를 사용해 별도 전력소모가 없는 FTTH와 달리 HFC에서는 전원공급기와 증폭기가 필요해 에너지 소모량이 많다.

LG유플러스는 2026년까지 HFC망을 FTTH망으로 전환하는 투자계획을 세우고, 2020년 하반기부터 서울·수도권·6대 광역시 등에서 전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3000만KWh의 전력소비와 1만 3436톤의 탄소배출량 절감 효과를 얻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앞으로도 HFC망의 전환으로 전력 사용량을 절감하는 활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명근 기자

G마켓, 해외직구 할인 혜택 ‘월간직구’ 오픈

G마켓이 매달 해외직구 상품을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월간직구’ 서비스를 선보인다. 매달 해외직구 품목 중 카테고리 하나를 선정해 할인가에 판매하고, 중복 할인쿠폰도 제공한다. 주문 즉시 3일 내 현지 출고하는 ‘빠른직구’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5월 선정 상품은 해외직구 수요가 높은 ‘건강식품’이다. 11월까지 다양한 해외 건강식품은 물론, 피부건강을 위한 뷰티제품 등을 합리적 가격에 만날 수 있다.

KT, 비즈메카 EZ ‘밀리의 서재’ 서비스 시작

KT는 중소기업용 업무포털 ‘비즈메카 EZ’에서 6만 8000개 기업, 38만 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밀리의 서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비즈메카 EZ를 사용하는 기업의 직원은 업무포털에서 밀리의 서재 도서 11만 권과 오디오북을 저렴한 가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KT는 비즈메카 EZ 사용 기업을 대상으로 밀리의 서재 연간 구독권을 정가보다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행사를 9월30일까지 진행한다. 비즈메카 EZ는 웹과 모바일이 연동되는 중소기업 전용 업무포털 서비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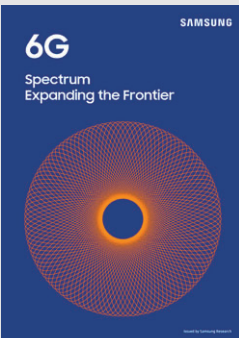
편집 | 한민규 기자 slopspe@donga.com

삼성전자, 6G 주파수 백서 발간…“차세대 이동통신 선도”

초광대역폭 주파수 확보안 제시
핵심 후보 기술 연구 성과도 밝혀
13일 ‘1회 삼성 6G 포럼’서 공개

삼성전자가 ‘6G 주파수 백서’를 냈다. 차세대 이동통신 6G 분야에서도 글로벌 표준화와 기술 생태계 구축을 주도하며 경쟁 우위를 지켜간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8일 삼성리서치(SR) 홈페이지에 ‘6G 주파수 백서: 주파수 영역의 확장’을 공개했다. 2020년 7월 발간한 ‘6G 백서’에서 ‘새로운 차원의 초연결 경



삼성전자 ‘6G 주파수 백서’ 표지.

험’이라는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비전을 제시했던 삼성전자는 이번 백서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주파수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삼성전자는 수백 MHz에서 수십 GHz에 이르는 초광대역폭의 연속적인 주파수가 필요한 것으

로 보고 모든 가능한 대역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는 동시에 6G 상용화 시점에도 5G망이 함께 운영되고 있을 것을 감안해 6G를 위한 별도의 신규 대역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이용해 6G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지원하기 위해 주파수 사용과 관련한 규제와 기술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테라헤르츠 밴드 통신 ▲재구성 가능한 지능형 표면(RIS) ▲교차분할 이중화(XDD) ▲전이중 통신

▲인공지능(AI) 기반 비선형성 보정(AI-NC) ▲AI 기반 에너지 절약(AI-ES) 등 6G와 관련된 핵심 후보 기술에 대한 연구 성과도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13일 개최하는 ‘제1회 삼성 6G 포럼’에서 6G 연구 성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행사 당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행사에는 승현준 삼성리서치 연구소장(사장)과 학계·업계의 세계적 통신전문가들이 참석한다.

김명근 기자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5월 9일 (월) 음력: 4월 9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소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호랑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토끼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용	행운색: 흰색 길방: 서	 뱀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운세 자체가 별로 좋지 않다. 나쁜 의미로 사기를 당하거나 재난을 만날 수 있는 날이다. 진행 중인 일에 골치가 아픈 일이 생길 수 있다. 잘 풀리지 않으며 고쳐보려는 마음이 크다. 머리를 쓰라. 우연히 뭔가 이루어지는 수가 있다.	모든 일에 과감하게 나아가지만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일을 벌이면 실패하기 쉬운 때이다. 지출이 많을 때이니 되도록이면 저축에 힘써라. 너무 밀고 나가면 상대가 주춤하고 멈춘다. 상대가 먼저 움직일 때를 기다리며 생각하라.	되도록 무리를 하지 말고 쉬운 길을 골라서 직전 있는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함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력을 연마하며 위험한 때가 지나갈 기다려야 한다. 운이 막혔으니 바라지 말라.	땅 속의 씨가 싹이 터서 따뜻한 태양의 열로 잘 자라 이윽고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모든 운세가 나아지기 시작하는 때이다. 어린 싹은 봄이란 계절과 강렬한 생명력과 풍부한 영양분을 필요로 한다. 견실하게 자신을 가지고 나아가라.	만사가 형통하는 운이나 큰일은 할 수가 없다. 너무나 소극적이라고 할 만큼 저자세로 일에 임하면 크게 길할 것이다. 모든 일에 도를 지나치면 도리어 재해를 입기 쉬운 때이므로 특히 대인관계 등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다.	안이한 생활에 젖어 물질적으로 파탄이 오거나 정신적으로 퇴폐적인 생활을 하게 될 때이다. 하지만 부패와 혼란의 시기는 동시에 혁신, 신생의 시대라는 기회로 삼으라. 오늘은 닭피와 돼지피와 함께하라.						
 말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양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원숭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닭	행운색: 검정 길방: 북	 개	행운색: 흰색 길방: 서	 돼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어떠한 위협이나 장애도 당당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하늘의 기운을 크게 모아 초목을 양육하는 산을 나타내는 운기이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해 충실한 방침을 세우고 착수할 때이다. 참고 기다리면 좋은 결실이 온다.	샘에서 흐르는 물줄기는 가뭄에 강이 될 수도 있다. 다만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올바르게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어렵고 답답하며 고뇌 속에 머물러 있는 때이니 경거망동을 삼가하라.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처음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나중에는 많은 사람의 협력을 얻어 대사업을 완성시킨다. 사람들을 많이 사귀어 둔다. 남보다 빨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로 가서 협력을 구하라.	사방이 위험으로 막혀있다. 함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력을 연마하며 위험한 시기를 넘겨야 한다. 시기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에 모험을 피해야 하며 내부의 정리에 힘써야 할 때이다. 돼지피가 귀인이다.	대체로 좋은 위치에 있지 못하고 시기적으로 뜻대로 되지 않는 수가 많다. 따라서 애매한 전망으로 일을 시작하다보면 반드시 중도에 좌절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 앞날은 밝아질 것이다. 호랑이 피와 말피를 만나라.	민둥산에 심어진 묘목들이 점차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어 온산을 초목으로 덮는 것처럼 점진적 발전을 할 때이다. 서서히 나아가는 것이다. 급격한 성장은 바람 수 없으나 착실하게 순리를 따라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